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22 효와 축수



▶한줄 요약
효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효에서 자비와 보살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효심이 곧 '불심', 효행이 곧 '보살행'

연기(緣起)로 확장된 효

불교 우화 '세 사람의 천사'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상(無常)을 일깨우는 무수한 천사들을 만난다고 말해준다. 생전에 악업을 많이 지어 지옥에 떨어진 이에게 염라대왕이 물었다. "너는 어찌 그리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일생을 살아왔느냐! 세상에 있을 때 세 사람의 천사를 만나지 못했더냐?" 이에 "제가 그런 천사들을 만났다면 왜 생전에 착하게 살지 못했겠습니까"라고 답하자, 염라대왕이 말한다.

"그렇다면 주름이 많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기운이 없어 걸음과 말씨도 느린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 "그런 노인이라면 수없이 보았지요." "너는 그 천사를 만나고도, 나도 언젠가 저렇게 늙어갈 테니 서둘러 선행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구나!"

염라대왕은 이어 병든 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과 답을 하고 나서 말한다. "너는 이처럼 늙어감과 병듦과 죽음을 경고하는 세 천사를 만났으면서도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을 게을리했기에 지옥 업을 받게 된 것이다." 세 천사는 나의 실존이며, 태어난 이상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철저히 직면하도록 일깨우는 가르침이라 하겠다.

이 우화는 싯다르타가 안락하고 풍요로운 태자의 삶을 떨치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 사문유관(四門遊觀)의 상징적 계기를 나타낸다. 싯다르타가 동문 밖에서 만난 노인, 남문 밖에서 만난 병든 이, 서문 밖에서 만난 죽은 이는 특별한 사건을 당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나 거치는 삶의 과정에 놓여있었다. 그 누구도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 번민하던 그는 북문 밖에서 사문을 만나, 번뇌를 끊을 수 있는 길을 찾아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불교에서는 지금의 내가 독자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며, 수많은 생을 거치는 동안 모든 존재가 서로 인과의 원리로 얽혀있다고 본다.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자 온몸을 던져 절하였다. 아난이 그 이유를 여쭙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이 한 무더기의 뼈는 과거 전생에 나의 조상이나 부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끝없는 예로부터 나의 부모가 아닌 자가 없다. 일체 남자는 모두 나의 자부(慈婦)이고 일체 여자는 모두 나의 비모(悲母)이다.

부처님은 연기의 도리를 깨달아 일체 중생이 나의 생명을 있게 한 존재임을 새기도록 하였다. 따라서 효(孝)의 일차적 대상은 자신을 낳고 기른 부모이지만, 연기의 가르침에 따른 불교의 효 관념은 무한히 확장되어 있다. 〈범망경〉 보살계에 "효순(孝順) 하는 것을 계라 한다"고 하였다. 계(戒)의 정의를 효순에 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효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효에서 자비와 보살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기 때문이다.

세 천사에 대한 실존적 자각과 함께, 현세에서 만나는 부모와 노인은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되어 보다 넓고 깊은 이해와 공경이 우러나온다. 효는 나의 부모를 넘어선 모든 부모와 일체중생에 대한 공경에 있으니 효심(孝心)이 곧 불심(佛心)이며, 효행(孝行)이 곧 보살행(菩薩行)인 것이다.

오십 세에서 백 세까지

무병장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바람이다. 따라서 육십갑자를 한 바퀴 돌아 태어난 간지의 해를 다시 맞으면, 노인으로 진입하여 장수를 기원하는 축수의례(祝壽儀禮)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환갑이 지나 수의(壽衣)를 마련하는 풍습도 같은 뜻이다. 수의에 목숨 '수(壽)' 자를 쓰듯이 장수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수의를 미리 만들어놓으면 장수한다"는 담론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백세를 기약하는 의복'이란 뜻으로 수의를 '백세의금(百歲依衾)'이라 부르기도 했으니, 자식이 부모의 수의와 관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 곧 효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환갑을 꺼리는 관념도 있었다. 고려 말 충렬왕이 환갑이 되는 해를 맞았을 때, 역술가가 '환갑은 재앙이 많은 해라 몸을 조심하고 덕을 닦도록' 충언하였다. 서민층까지 환갑잔치가 일반화되었던 조선 중기에도 성혼(成渾)의 문집에 '올해가 61세이니 세속에서 꺼리는 이른바 환갑'이란 내용이 전한다. 수십 년 전까지 '환갑을 하면 좋지 않다' 하여 한 해 앞당겨 잔치하거나, 환갑잔치를 '산 제사'라 부르고 당사자를 '산 조상'이라 하여 조상숭배의 맥락을 따르는 풍습도 있었다.

이는 환갑이 지나면 사주팔자의 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서, 육십갑자를 넘어선 시점을 '생의 일단락'이라는 의미로 여겼기 때문이다. 황제가 제정한 연호(年號)나 육십갑자로 연도를 나타내던 시절에, 60년이라는 시간은 허물어졌다가 재생하는 반복의 주기였다. 이처럼 평균수명이 짧았던 시대에 환갑은 경사스러운 날인 동시에, 육십갑자를 넘어선 데 대한 조심스러움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통도사 팔상도의 '사문유관상' 중 남문(병자)과 서문(상여) 장면. ©성보문화재연구원

고려, 불교 '축수의례' 성황
공민왕, 살생없는 생일 잔치
1천명 스님에 공양 올리기도
보살계에선 '효순이 곧 계'



회갑연 장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런가 하면 〈예기〉에 경로의 지침을 상세히 밝혀둔 점이 흥미롭다. 이를테면 50세부터 노화가 시작되니 좋은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고, 60세에 이르면 고기반찬이 필요하며, 70세에는 가외 반찬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명주옷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다고 하였다. 점차 허약하고 영양이 부족해지니 음식과 보온 등에 신경을 쓰도록 연령별 지침을 만든 것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적 대우가 높아짐을 지팡이를 통해 드러내기도 하였다. '오십장어가(五十杖於家)'라 하여 50세에는 집안에서 지팡이를 짚다가, 60세가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70세에 이르면 나라에서, 80세에는 조정에서 지팡이를 짚는다고 하였다. 이때의 지팡이란 노인으로서 누리는 특권을 의미하여, 집안 중심의 노인에서 점차 마을과 나라는 물론 임금이 있는 조정에 이르기까지 대우가 확장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아울러 50~60대의 노인에게는 당사자의 부역과 병역을 면해주지만, 80대 노인이 있는 집에는 아들 한 명에게 국가 부역을 면제하고, 90세의 노인이 있으면 집안의 모든 부역을 면제시켜주어 노인 봉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의 경로정책은 기로(耆老)·양로(養老)의 문화에서 살필 수 있다. 70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문관을 우대하기 위해 기로소(耆老所)를 설치하고, 이들에게 임금이 지팡이와 의자 등을 하사하였다. 봄·가을에는 장수를 축하하는 기로연(耆老宴)을 열어, 참석자들이 축하의 시를 지어 시축을 만들고 잔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다.

일반백성에게는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다. 매년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궁궐과 지방관아로 청해 경로잔치를 열고 선물을 내렸으며, 노인직(老人職)·수직(壽職)이라 하여 80세가 넘은 노인이라면 누구든 품계를 주었다. 백 세가 넘으면 비록 평민이라도 종1품 숭정대부의 품계를 주었으니,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분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경로 풍습이었다.

부처님과 함께한 축수의례

고려 현종은 자신의 탄신잔치 대신, 먼저 떠난 부모를 기리며 축수도량(祝壽道場)만 간소하게 열었다. "나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앞으로는 봉양할 길이 없다. 매양 부모의 은공을 생각할 때 추모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거니, 어찌 슬픈 생각을 억누르고 도리어 축하를 받겠는가. 이제부터 진상하는 축하물자를 모두 금하고, 오직 축수하는 도량만 두어 행하라"고 명한 것이다.

지금도 자신의 생일에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문화가 있듯이, 1012년에 현종은 어린시절 돌아가신 부모를 추모하며, 모든 하례를 금하고 불교의례만 간략히 봉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시대에는 왕의 생일에 무병장수를 바라는 축수도량·축수재와 함께, 많은 스님에게 공양을 대접하는 반승(飯僧)이 성행하였다.

고려 말 공민왕은 자신의 생일에 잔치를 열면 반드시 살생이 따르니, 대신 1천명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에 회암사에 거둥하여 직접 향로를 받들고 승방을 돌며 일일이 스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동행한 왕비와 세자들도 함께 밤새워 불공을 올렸다. 국운이 위태로운 시기라 불법에 의지하는 뜻도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신(七星神)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풍습도 민간의 전유물만이 아니었다. 불교에서는 칠성을 불교적으로 재편한 칠성여래를 함께 모시고 있어, 스님들을 청해 칠성신에게 왕실의 장수를 비는 도량을 베풀기도 한 것이다.

이때 이규보는 "…청정한 법당에서 법식의 자리를 마련하고, 큰스님들을 청해 비밀의 법장을 펼칩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부처님의 감싸주심에 의지하고 신령의 보호를 입어, 강건하고 굳세어 다함 없는 수명을 길이 누리시고, 백성이 화목하여 가지런한 세계를 이어가도록 하소서"라는 내용의 '국복북두연명도액(國卜北斗延命度厄) 도량문'을 지어 올렸다.

조선왕조는 불법에 의지하려는 마음과 유교이념의 명분이 상충하는 시대로, 축수재 또한 폐지와 봉행이 거듭되었다. 이에 조선 말 조재삼(趙在三)은, "임금의 탄신일에 훈구대신들이 절에 가서 재를 마련해 축수하던 관습을 성종 때 혁파했으나, 지금 불좌 앞에 여전히 '주상전하만만세(主上殿下萬萬歲)' 일곱 자를 쓴다"고 하였다. 조선의 수많은 원당(願堂)이 각종 축원을 위해 세워졌고, 장수 복락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 소망이기에 비공식의 축수재는 더 많이 행해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근대기에는 효를 다짐하는 '보은회'가 결정되기도 했다. 1915년 경성 소림사(小林寺)에서 대보부모은중회(大報父母恩重會)를 구성해, 도장까지 찍어가며 부모 은혜 갚기를 맹세하고 지성으로 불전에 축원하면서 효를 다짐한 것이다. 소문을 듣고 뒤이어 입회하려는 각처의 선남선녀가 줄을 이었다 한다. 주기적으로 법회를 열어 보은의 뜻을 다짐한 뜻이 가상하나, 구성 면면을 보면 재력가들이 교류를 위해 결성한 모임의 성격이 짙다.

왕실과 지배층의 효와 축수의 역사가 문자로 기록되었다면, 서민층의 효는 부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법하다. 〈범망경〉 보살계에 '효순이 곧 계'라 했듯이, 대다수 민중의 마음은 낮게 흐르며 대지를 적시는 물처럼 자연에 가깝기 때문이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